

포커스 e-기업

(주)우성포토교역

# 코니카미놀타 신제품 발표와 함께 디지털 사진시장에 '변화의 바람' 예고

코니카와 미놀타가 만나 탄생시킨 세계적인 디지털 이미징 전문회사 코니카 미놀타의 첫 번째 야심적인 DSLR 'DYNAX 7D' 발표회가 한국 에이전트인 (주)우성포토교역(대표·박노신) 주최로 지난 1월 25일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열렸다. 합병 당시부터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코니카미놀타는 금번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우성포토교역과 함께 한국의 디지털 사진시장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2003년 8월 세계적인 광학회사인 코니카와 미놀타가 합병을 통해 코니카미놀타로 거듭나면서 큰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이어 이번에는 코니카미놀타가 두 회사의 기술력이 결합된 신제품 발표회를 가져 또 한번 관심을 불러모았다.

(주)우성포토교역은 지난 1월 25일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코니카미놀타가 만나 탄생시킨 첫 번째 야심작 DSLR 'DYNAX 7D'를 비롯한 'DIMAGE A2000' 및 각종 콤팩트카메라 신제품을 선보였다.

우성포토교역의 박노신 대표이사과 코니카미놀타 포토이미징카메라 사업부의 아스히로 슈가 본부장을 비롯,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박노신 대표이사의 환영 인사말과 아스히로 슈가 본부장의 축사, 이어 회사 소개 및 제품설명 시간이 진행되었다.

박노신 대표이사는 환영 인사말을 통해 "우성포토교역이 2005년 1월부터 코니카미놀타의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미니랩, 잉크젯 페이퍼 등 다양한 제품을 한국시장에 공급할 것

이며 코니카미놀타가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영상사업부 정우철 과장은 제품소개를 통해 "코니카와 미놀타가 만나 발표한 야심찬 첫 작품인 DSLR DYNAX 7D는 바다 자체에 손떨림방지기술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SLR"이라며 "이른바 Anti-Shake 테크놀러지라 불리는 바다내장형 손떨림방지기능은 기존의 카메라들과는 달리 CCD자체가 움직여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술로서, 셔터스피드 조절이나 삼각대 없이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한 것은 물론 어두운 공연장에서도 플래시 없이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α 시리즈'의 렌즈와 액세서리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철 과장은 신제품 출시와 관련,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코니카미놀타 제품이 갖고 있는 퀄리티를 기반으로 타사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미놀타 사용자들이 아쉬워하는 렌즈와 액세서리 관련 부분에 대한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품 판매



▶우성포토교역의 코니카미놀타 신제품 발표회가 1월 25일 홀리데이인서울에서 있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우성포토교역의 박노신 대표이사

망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AS에 있어서도 2년 동안 품질보증 기간을 주고 있으며 기존 코니카미놀타 디지털카메라를 함께 국내 공급한 아주포커스와도 AS 관련 업무 이양이 이루어진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좀더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DSLR ‘DYNAX 7D’ 외에도 ‘DIMAGE A2000’, ‘DIMAGE Z3’, ‘DIMAGE Z20’, ‘DIMAGE X’ 시리즈에 대한 제품소개가 있었으며, 이날 참석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행사가 이어져 즐거운 분위기 속에 신제품 발표회 행사가 진행되었다.

코니카는 1877년에, 미놀타는 1928년에 각각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 8월 정식 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 이미징 전문회사로 거듭났다. 코니카미놀타 그룹의 정식 명칭은 코니카미놀타 홀딩 인코퍼레이션으로서, 현재 전 세계 134개의 관련 회사와 3만 4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첨단 광학, 디지털 이미징, 사무기기 등 5개의 전문 영역의 사업부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포토 이미징의 인풋(In-Put)에서부터 아웃풋(Out-Put)에 이르기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니카미놀타는 ‘DIMAGE 시리즈’와 ‘DYNAX 시리즈’의 카메라 사업

을 통해 첨단 광학기술을 선보임과 함께 ‘R 시리즈’의 미니랩을 통해 은염프린팅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 외 잉크젯 페이지, 네거티브, 슬라이드 필름 등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메라의 흔들림 방지를 위한 바디 내장형 흔들림 방지 기술을 통해 2004~2005년 EISA에서 유럽 포토 혁신상을 수상했다.

한편, 1967년 설립된 우성필름은 1991년 코니카의 한국 에이전트가 된 이후 1994년 별도로 우성포토교역을 설립하여 사진기자재 수입판매를 해왔으며 코니카와 미놀타가 합병 이후 2004년부터는 코니카미놀타의 한국 공식 에이전트가 되었다.

